



# 「協會」의 사명과

## 「協會報」의 구실

- 「環境保全協會報」 100號에 붙인다. -

### 1. 한국적 현실에서의 「環境保全協會」

組織社會에서 協會가 갖는 비중은 매우 크다.

작게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단결해 자신의 권익을 찾고 지기가 위한 모임이며, 크게는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協會는 많을수록 좋고 기구가 확대될수록 좋다. 그러나 같은 목적과 사업을 갖고 있는 協會가 난립함으로써 갖게 되는 비리와 직원 수용을 위한 듯한 기구 확대는 오히려 協會 발전에 역행될 뿐 아니라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기도 한다.

흔히, 한국적 현실에서의 協會는 어려운 작업으로 평가된다. 여러 雜多한 이유와 조건이 따르겠으나, 한마디로 團結이 어려운 民族性 때문이라는 것이 衆論이다.

個人的으로는 우수하나 둘 이상이 되면 지리멸렬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무엇에 앞서 團結을 요하는 協會가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비영리 단체 보다는 영리 단체가 그리고 압력 단체가 특하면 깨져 들어되고 셋이되는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런 風土 속에서 「社團法人 環境保全協會」는 창립 7 주년을 맞았다. 아니 前身인 「公害防止協會」 때부터 따지면 10여년이 된다.

그간의 우여곡절은 어쨌건 분명한 발전으로 오늘에 이르렀고, 창립 때부터 協會를 이끌어 온 사람들이 지금도 協會를 지키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環境保全協會」는 성공했다고 評價해도 될 것이다.

### 2. 나와 「環境保全協會」

내가 지금의 「環境保全協會」의 前身인 「公害防止協會」를 처음 방문한 것은 꼭 10년전인 1975년 겨울이었다.



朴 昌 根

〈(社)環境教育會委員長〉

盧在植 선생님의 소개로 을지로 3가 「등대」다방이 있는 건물의 사무실에서 차 한잔을 나누고 바로 옆 「의학신보사」 2층 사장실에서 당시 協會長이었던 박선규씨를 만났다.

지극히 공식적이며 예의적인 방문이었다. 당시 나는 「韓國環境保護協會」를 창립해 놓고, 순수한 민간단체로 활동하기 시작한 초기여서, 말하자면 인사차 來訪했던 것이다.

그 후 서로의 사업에 바빠 이렇다 할 왕래없이 5~6년이 지났다.

1980년 環境廳이 新設되면서 「公害防止協會」는 「環境保全協會」로 발돋움해 을지로 3가의 사무실에서, 조선히otel 앞 前 상공회의소 건물로 이전하고, 기구도 대폭적으로 개편 확대되었다.

특히, 鄭壽昌회장님이 協會長으로 취임하면서 「環境保全協會」는 명실 상부 環境問題, 環境人의 協會로 많은 사업을 전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1년 12월 環境廳으로부터, 社團法人 설립 허가를 받은 「環境教育會」대표로 나는 「環境保全協會」와의 유대 강화의 필요성을 느껴 자주 協會를 방문하게 되었다.

물론, 법정 단체로 國庫의 보조를 받는 協會의 폭넓은 사업을 흉내 낼 수 있는 내 입장은 아니었으나 돈 안들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協會」를 자주 방문한 것이 오늘에 이른다.

그동안 「環境保全協會」는 <公害防止機器展> <文藝作品公募>, <환경보전사진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行事를 전개해 왔다.

그 중에서도 이번 號로 紙齡 100號가 되는 「環境保全協會報」의 발행은 環境 분야에서 뿐 아니라 이 나라 言論·出版분야에서도 기념비적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 3. 「環境保全協會報」의 업적

타블로이드版 News letter로 시작된 「公害防止協會報」가 본격적인 환경문제 매체로 출발한 것은 1981년 「環境保全協會報」로 개칭되면서 비롯된다.

그러나 漢字의 지나친 사용과 종서의 斷 처리 그리고 신문 형태의 편집 등으로 딱딱한 분위기를 주어 親近感을 못 느끼게 했다.

그 후 내용의 쇄신과 편집의 파격적인 탈바꿈을 시도한 오늘의 4x6倍版 체제가 되면서 부터 「環境保全協會報」는 명실 공히 環境人의 대변지, 環境問題의 대중 매체가 되었다.



즉, 읽기 편한 가로 쓰기와 딱딱하지 않은 한글 위주의 조판 그리고 폭넓은 내용의 논단, 칼럼, 보고, 소식 등을 4×6 배版的 함축성 있는 판형에 담아 거리감을 좁혔다.

뿐만 아니라 月刊에서 月2回 발행의 시간성을 좁혀, 항시 「協會報」의 공감대에 젖게한 것은 오늘날과 같이 뉴스의 감각을 빨리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世人の 욕구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環境保全協會報」는 이 나라 環境保全을 위해 100號의 誌齡 속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어찌 경하하지 않을소나?

#### 4. 環境人이 바라는 協會의 來日

누가 뭐라고 해도 「環境保全協會」가 이 나라 環境인인 사랑방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環境인들은 協會가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발전적으로 강화,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즉, 정부의 시녀가 아닌 環境인인 하인으로 그리고 정부를 위해 올기 보다는 環境인을 위해 올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용단을 내려 주어야 할 것이다.

첫째, 汎社會的, 國家的 조직이 되어야 한다.

環境의 다변적 특성에 맞게 社會 各界와 각층에 폭넓은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汚染者의 입장에서라도 대변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

둘째, 協會면서 協會外的인 活動을 展開해야 한다.

協會가 갖고 있는 特質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協會의 立場이라는 제한된 배경」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汚染源에 압력단체가 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진정 고발에 앞장 서 모든 環境인인 힘이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힘을 갖출 때, 비로서 協會는 진정한 環境人인 사랑방이 되고 環境의 대변 창구가 될 것이다.

#### 5. 「協會報」의 폭넓은 視覺

현재 「協會報」는 논단, 칼럼, 시론, 연구논문, 소식 등으로 짜여져 있다. 그리고 筆者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어쩔수 없는 여건하에서 제작되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보다 誌面





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적극적인 告發 기사를 다뤄 환경인 外에도 「協會報」의 기사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기사의 方向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TV, 방송, 신문 매체에 뉴스를 주는 프론티어적 자세가 되어야 한다.

예측하지 못했던 사실을 집중 분석하여 사회에 알리는 公器 역할이 「協會報」가 할 의무이다.

가급적으로 讚反의 論理에 誌面을 할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成長論」과 「保全論」을 계속 게재하여 讀者로 하여금 두 상충되는 論理 속에서 스스로 成長의 모순과 保全의 당위성을 찾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인의 活動 소식에 비중있는 點을 맞춰야 한다. 특히 個人的 私生活에서 부터 研究 活動分野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환경인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추는 소식이 필요하다.

지금의 2~3 행의 동정 보다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는 식의 알림으로 폭넓은 사랑방 구실을 해야 한다.

끝으로 「協會報」는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뉴스와 발표는 물론 기성의 詩人, 作家, 經濟人, 法曹人 등을 망라해 신선한 環境問題를 대두시켜야 한다.

즉, 海外 뉴스의 발굴, 각고의 연구 논문 발표, 環境관계의 詩, 小說, 그림, 경제 數值, 件例등을 발굴해 내야 한다.

「協會」創立 7年, 「協會報」發行 100號가 우연이 아닌 것 같이 보다 발전적인 「協會」와 진취적인 「協會報」의 未來도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오직 「희생」과 「용기」로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임을 環境人의 한 사람으로 忠言한다. \*

